

[어휘 · 어법 수능기출 문제Ⅱ] 정답 및 해설
-유의어, 반의어, 다의어-

1. '추이(推移)'는 '일이나 형편이 시간의 경과에 따라 변하여 나감. 또는 그런 경향'의 의미로서, 문맥상 ㉠의 '추이'는 '추세(趨勢, 대세의 흐름이나 경향)'의 뜻으로, ㉡의 '추이'는 '동태(動態, 변해 가는 형태)'의 뜻으로 쓰였다. 답 ①
2. '미궁(迷宮)'은 '복잡하게 얽힌 상태'의 의미로 '최후를 맞이한다'는 의미와는 거리가 있다. ㉢중언(綜焉)을 고한다, ㉣종지부(終止符)를 찍는다, ㉤대단원(大團圓)의 막을 내린다는 '~을 마친다, 끝내다'의 뜻으로 사용됨. 답 ②
3. '㉠치밀(緻密) : ㉢엄밀(嚴密)'의 의미 관계는 유의 관계에 해당하며, ㉠, ㉡, ㉢, ㉣는 유의 관계에 속하지만, ㉤'분석(分析) : 분류(分類)'는 유의 관계가 아니다. 답 ⑤
4. ㉠'고우면'은 '(체나 그물의) 간격이 좁거나 촘촘함'의 뜻으로 쓰였다. ㉡'배다'는 '물건의 사이가 비좁거나 촘촘하다'의 뜻이다. ㉢'밋밋하다'는 '1.생김새가 미끈하게 곧고 길다. 2.경사나 굴곡이 심하지 않고 평평하고 비스듬하다. 3.생긴 모양 따위가 두드러진 특징이 없이 평범하다.'의 뜻으로 '곱다'와는 다르다. 답 ③
5. '쟁이질'은 '매우 바쁠 때에 쓸데없는 일로 남을 귀찮게 하는 것'을 의미한다. 답 ④
6. '봉착하다'는 '어떤 처지나 상태에 부닥침'의 뜻이다. ㉣의 '맞아들이다'는 '(찾아온 사람) 맞이하여 안으로 들게 하다'의 뜻이므로 '봉착하다'와는 바꾸어 쓸 수 없다. 답 ④
7. '타성에 젖어 들고'는 '자신도 모르게 좋지 않은 버릇을 갖게 됨'의 의미이다. ㉣의 '스며들고'는 '(액체가) 속으로 배어들다. 마음 깊이 느껴지다'의 의미이므로 '타성'과 호응하기에 부적절하다. 답 ④
8. ㉢의 '대중이 없다'는 뚜렷이 정해진 기준이 없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. 그런데 '좌지우지하다'는 '제 마음대로 다루거나 휘두름'의 의미이므로 이와는 거리가 있다. 나머지의 단어들은 '뚜렷이 정해진 것이 없다'는 의미가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기에 ㉣와 어느 정도 유사성이 보인다. 답 ③
9. '성김'과 '뻘뻘함'의 의미 관계는 반의 관계이고, ㉢'넉넉하다 : 푼푼하다'는 유의 관계이다. 답 ③
10. <보기1>은 문맥에 따라 반의어가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. <보기2>는 '서다'라는 단어의 다양한 반의어를 예문과 함께 보여주고 있다. [A]의 경우 '시계가 서다'의 반의어가 들어가야 하므로 '(시계가) 가다'가 맞고, [B]의 경우 '깎이다'와 반의 관계인 '서다'가 사용된 예문이 들어가야 하므로 '회장으로서는 체면이 서지 않았다.'가 맞고(체면이 서다 ↔ 체면이 깎이다), [C]의 경우 '기강이 서다'의 반의어가 들어가야 하므로 '(기강이) 무너지다'가 맞다. 답 ③
11. ㉠'굳어졌다'는 '점점 몸에 배어 아주 자리를 잡게 되다.'는 뜻으로 ㉡가 이에 해당한다. ㉠은 '누르는 자국이 나지 아니할 만큼 단단하게 되다.'의 뜻. ㉢은 '표정이나 태도 따위가 긴장으로 딱딱하게 되다.'의 뜻. ㉣, ㉤는 '근육이나 뼈마디가 점점 뻣뻣하게 되다.'의 뜻. 답 ②
12. '양반'은 '1. 지체나 신분이 높은 상류계급에 속한 사람. 2. 남자를 높이거나 낮추어 부르는 말. 3. 자기 남편을 남에게 이르는 말' 등의 의미를 지닌다. <보기>와 ㉢의 '양반'은 2의 의미에 속하고, ㉠, ㉡, ㉣은 1의 의미에 속한다. 답 ③
13. ㉠'마음'은 '의사·의향·뜻'의 의미로 ㉡와 일치한다. ㉠, ㉣는 '인정 또는 인심'의 의미이며, ㉢, ㉤는 '감정·기분 등이 상황에 따라 미묘하게 움직임'의 의미로 쓰였다. 답 ②

14. ㉠'말'은 '인간이 사용하는 언어, 의사소통 수단으로서의 언어 일반'라는 포괄적 의미로서 ㉡에 해당한다. ㉠은 '화제 또는 이야기', ㉢은 화제 전환의 관용어, ㉣는 '표현', ㉤는 '소문'의 의미이다. 답 ㉡

15. ㉠'셈'은 '이익'의 의미로 ㉠과 같다. ㉡는 '~에 해당함, ~와 마찬가지로' ㉢은 '사정, 경우', ㉣는 '형편', ㉤는 '수를 세다'에 해당한다. 답 ㉠

16. ㉠'같은'은 '부류에 속하는 것'의 의미로 사용되었다. 이와 같은 의미로 쓰인 것은 ㉠이다. ㉡는 '동일한', ㉢은 '추측', ㉣는 '비슷한(비유)', ㉤는 '자격(답다)'을 나타내는 의미로 사용되었다. 답 ㉠

17. '해거리'는 '한 해를 거름. 격년(隔年)'을 의미하는 말이다. 그런데 거리²의 ㉠은 '체정한 시간 동안 해낼 만한 일'이라는 의미이므로 '해거리'와 전혀 관련이 없다. '해거리'는 '해'에 거리⁶ '주기의 뜻을 나타내는 접미사'가 결합된 것이다. 답 ㉣

18. ㉠'온다는 것은 ~'은 외계에서 지구로 '흘러 들어온다는' 의미이다. 이러한 의미를 지닌 말은 '유입'이다. 이 말은 '물이나 공기가 어떤 곳으로 흘러들'을 뜻한다. ㉠은 '물자나 자금을 들여 넣는다.'는 의미이고, ㉡는 '외국의 물품을 사들인다.'는 의미이다. ㉣는 '이미 짜여진 대열 등에 끼어 들어간다.'는 의미이고, ㉤는 (기술·방법·물자 등을 외부에서 내부로) 끌어들인다.'는 의미이다. 답 ㉢

19. ㉠'바르다'는, '한데 어울려 있는 것 속에서 필요한 것(필요하지 않은 것)만 골라낸다.'의 의미로 이와 같은 의미로 사용된 것은 ㉤이다. ㉠은 '액체나 가루 따위를 다른 물체에 묻힌다.' ㉡는 '종이나 형질 따위에 풀칠을 하여 다른 물체에 붙이다.' ㉢, ㉣는 '도리나 사리에 맞아 어긋남이 없다.'의 뜻이다. 답 ㉤

20. ㉠'치다'는 '인정하거나 가정하다'의 의미로 쓰였다. 그러므로 이와 같은 의미로 사용된 것은 '내가 잘못했다고 가정하고 그만 화해하자.'의 ㉣번이다. ㉠, ㉡는 '계산에 넣다' ㉢은 '값을 매기다' ㉤는 '따지다' 답 ㉣

21. <보기>의 '불-타다1'은 기본적 의미이고 비유적으로 사용되는 '불-타다2'는 확장된 의미이다. ㉠은 저녁놀이 불타는 것이므로 기본적 의미가 아니라 확장된 의미인 '불타다2'에 해당한다. 그런데 ㉡의 '손꼽아'는 문맥상 '손가락을 꼽아 수를 세다.'는 기본적 의미로 풀이되므로 ㉠과 쓰임이 다르다. ㉠ '물오른 싱싱한 생선'에서 '물오른'은 실제로 물이 올랐다는 것이 아니고 싱싱한 상태를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이므로 확장된 의미로 쓰인 경우이다. ㉢ '두령을 수놓고'에서 '수놓고'는 실제로 수를 놓는다는 것이 아니고 수를 놓은 것처럼 아름다운 경치를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이므로 확장된 의미로 쓰인 경우이다. ㉣ '바람 소리도 잠들고'에서 '잠들고'는 실제로 잠이 들었다는 것이 아니고 바람 소리가 사라져 없어진 상태를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이므로 확장된 의미로 쓰인 경우이다. ㉤ '신록을 살찌게 하는 비'에서 '살찌게'는 실제로 살이 찌게 한다는 것이 아니고 신록을 더 짙게 보이는 상태를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이므로 확장된 의미로 쓰인 경우이다. 답 ㉡

22. ㉠'얻다'는 '구하거나 찾아서 가지다'라는 의미로 어떤 사례를 통해 새로운 생각을 포착하게 된 것을 의미하는 상황에서 쓰인 말이다. 그러므로 이와 같은 의미로 쓰인 것은 ㉡이다. ㉠은 '돈을 빌리다'의 의미. ㉢은 '병을 앓게 되다'의 의미 ㉣는 '권리나 결과, 재산 따위를 차지하거나 획득하다'의 의미 ㉤는 '사위, 며느리, 자식, 남편, 아내 등을 맞다.'의 의미. 답 ㉡

23. '수재 의원금을 내서 수재민을 도왔다.'에서의 '돕다'는 '빈민, 이재민에게 금품을 주어 구제하다'의 의미를 지닌 '구휼(救恤)'이 적절하다. '구명하다'는 '목숨을 구하다'는 의미이다. 답 ㉠

24. '태종에게 미치지 못하는 후세의 군주가'라는 문맥으로 볼 때, 이 부분에서 ㉠은 '일정한 기준 혹은 수준에 도달하다'는 의미로 쓰였음을 알 수 있다. ㉠에서도 '미치지'라는 말이 '어머니의 숨씨'라는 기준에 '도달하지' 못했다는 의미로 쓰이고 있다. ㉡의 '미쳤다'는 자동사로서 '어떤 대상에게 힘이 나 작용이 가 닿다.'는 의미로 쓰이고 있다. ㉢의 '미치지'는 자동사로서 '말이나 생각이 어떤 대상에까지 이르다.'는 의미로 쓰이고 있다. ㉣의 '미치는'은 타동사로서 '영향을 끼치다'는 의미로 쓰이고 있다.

⑤의 '미친다'는 자동사로서 '어떤 대상에게 힘이나 작용이 가 닿다.'는 의미로 쓰이고 있다. 답 ①